

여야, '통일교·2차 종합특검' 정면 충돌

특검 대상·추천 방식 놓고 극한 대치

민주, 2차 특검법 새해 1호 법안 추천
국힘, 결사 반대 입장 '필버'로 저지선

연말연시 정국이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이라는 2개의 거대한 암초를 만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연내 법안 처리라는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신년 초부터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갱점은 수사 대상 확대와 특별검사 추천권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뿐만 아니라,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정교 유착의 뿌리를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신천지의 당원 가입 및 선거 개입 의혹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연 작전'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 관련 내용을 무리하게 포함시켜 협상을 공전시킴으로써 2018년 통일교 측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올해 말이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추천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추천안을 역제안한 상태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둘러싼 전운은 더욱 짙다. 민주당은 지난 12·3 계엄 사태와 김건희, 채해병 사건 등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자 '내란 물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달 12일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은 무제한 투론(필리버스터)을 통해 저지선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1월 정국이 향후 주도권 싸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달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나오는 내란 혐의 관련 첫 1심 선고 결과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종합특검 추진 동력이 힘을 받거나, 반대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 내부 사정도 복잡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 대표가 각종 비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 여야 협상 테이블의 불확실성을 기우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협상 파트너의 거취 문제에 정국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갱점 법안 추진과 이에 맞선 국민의힘의 비협조 기조가 맞물리며 민생 법안 처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진수기자



다족보행로봇과 철책 경계 근무
강인한 군인 정신과 첨단 기술이 결합한 경기도 연천의 새벽. 대한민국 국방이 나아갈 희망찬 미래를 비추듯 여명이 밝아온다. 5A 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지난 22일 연천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보행로봇과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문화예술 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 절실”

민형배 주최 '광주문화예술 혁신포럼'

최종일 "AI·CT 융복합산업 육성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과 'AI시대,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가 공동 주최한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포럼'이 27일 오전 7시 조선대학교 입석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광주문화예술의 생활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민 의원과 기조강연을 맡은 천득염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위원회), 발제자인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를 비롯해 전남대, GIST 등 지역 대학교수, 예술가, 연구자 등 문화예술계 관계자 100여명이 출근한다.

경호처, 청와대 보안점검 완료

대통령 경호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청와대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 집무실로 출근한다.

참석했다.

천 명예교수는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

천 교수는 "광주는 구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도시로 근대적 사건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역사 문화 도시'로 정체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대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전문가는 배제되고 시민은 소외됐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있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상생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해 100년을 내다보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제를 맡은 최종일 교수는 광주문화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AI·CT 기반의 융복합 산업 육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광주 지역 산업 연관도 분석 결과, AI 기술이 타 산업의 중간재로 활용되는 비중

이 높아진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AI가 단순히 보조 기술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결합해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를 창출하는 'AI 신산업'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질적인 발전 방안으로 ▲도심 내 빈 건물을 활용한 '공간형 실감 경험 가상 테마파크' 조성 ▲방문객 데이터 학습을 통한 '문화 관련 AI 실증 랩' 도입 ▲현장 크리에이터와 공동 작업하는 '6년 주기 전문 인력 양성 로드맵' 구축 등을 제안했다.

황룡년 전라도닷컴 대표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론에서는 광주 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오갔다.

민형배 의원은 "광주의 문화예술정책이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공모사업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제안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포럼이 그간 침체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보안점검은 지난 22~26일 청와대 주요 시설과 경내 산악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안전·보안·위생·소방·화생방 대비 분야 점검과 위험물 탐지가 이뤄졌다.

경호처의 총괄 아래 국가정보원, 경찰특공대, 서울소방재난본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화생방 대대, 전파관리소 등 총 14개 기관이 참여했다.

경호처는 "3년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최고 수준의 경호·경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며 "도청 장치 및 은닉 카메라, 전자기기,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최고 수준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개호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신설 환영"

“女농업인 권리 향상·성평등 실현 초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남양·함평·영광·장성)은 2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한시 조직이었던 '농촌여성정책팀'을 '농촌여성정책과'로 정규 조직화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농촌여성정책과' 승격은 이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 여성농업인의 위상 강화와 전문적 지원을 위해 '농촌여성정책팀'을 처음 신설한 지 약 6년 만에 이뤄진 결실이다.

당시 이 의원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업 생산의 핵심 주체로 떠오



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 조직이 부재했던 현실을 타개하고자 농촌여성정책팀 신설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후 농촌여성정책팀은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 확대,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등 균형한 성과를 내왔으나 한시 조직이라는 한계로 인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의원은 "농촌여성정책과가 여성농업인 권리 향상과 성평등 농촌 실현의 단단한 초석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예산과 입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